



国籍: 韓国(大邱)

生年: 1971 年

メディア: ファブリックアート

Ku Ji Raung(ク・ジ・ラン)は韓国の大邱で生まれ、亶城女子大学と淑明大学でキルトについて学びました。ファブリックアートの制作に携わってからは 15 年以上の実績があります。彼女の紡ぎ出す作品は韓国国内を始め、日本、台湾、中国でのアートフェアに出品されており、今回東京では初となる個展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彼女の作品の特徴は繊維素材をメインにさまざまな素材を組み合わせて、さまざまな方法で作るところにあります。繊維素材は彼女自身が一本一本手で染め上げたものを使っています。また染色には天然素材を使い、デジタルでは表現できないオリジナルのカラー Spektrum を生み出しています。

現代美術家である彼女は、繊維の線、重なりによる抽象的な世界を表現したいと考えていましたが、彼女の表現したい世界は既存のものでは表現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様々な試行錯誤を繰り返してきました。現在でも常に革新的な素材、方法による表現に挑み続けています。

Nationality: South Korea (Daegu)

Year of Birth: 1971

Medium: Fabric Art

Ku Ji Raung was born in Daegu, South Korea. She majored in quilts at Hyosung Women's University and Sookmyung University. She has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in fabric art. She participated in exhibitions in Japan, Korea, Taiwan, China and other countries.

Ku Ji Raung combines various materials, other than textiles to create her work in a variety of ways. The materials she uses are all hand-dyed by her using organic materials to attain a wide spectrum of colours.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when she began to create. Her inspiration and motivation comes from contemporary art. She wants to create an abstract work that includes lines, detail and layers, far from the traditional style. She hopes to improve and continuously learn to express her concept in her work.

한국의 대구 출신인 구지량은 효성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퀼트를 전공했고 15 년 이상의 재봉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및 기타 여러 국가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그녀는 다양한 소재를 결합하여 섬유 소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그녀가 처음 작품을 제작하려 했을 때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그녀가 작품을 제작할 때에 영감을 받는 대상은 현대미술에 있다. 구지량은 라인, 디테일, 평면을 정밀하게 사용하여 추상적인 작업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개선하고 여러 스타일을 배우며 작품에서 자신의 개념을 표현하기를 바란다.